

12/9/18

설교 제목: 에스더의 결단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더 4 장 1-17 절

- (에 4:1)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 (에 4:2)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 (에 4:3)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 (에 4:4)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 (에 4:5)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 (에 4:6) 하닥이 대궐 문 앞 성 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 (에 4:7)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 (에 4:8)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 (에 4:9)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 (에 4:10)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 (에 4:11)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하니라 **절관주** 에 5:1, 단 2:9
- (에 4:12)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 (에 4: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 (에 4: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 (에 4:15)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 (에 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 (에 4:17)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달월 십 삼일 그러니까 열 두번째 달 십 삼일을 Day 로 잡아 이 날 하루 동안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조서로 인해 유대 민족은 심각한 민족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같은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은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 (에 4:1)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 (에 4:2)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 (에 4:3)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고난 중에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 (시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나머지 제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보니 주변이 어수선하였습니다.

사연인 즉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 달라고 청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며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하시어 내쫓으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집에 돌아가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는지를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막 9:29)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금식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어 주지 않으시면 굶어 죽는다는데 하나님이 어찌실거야? 들어 주실 수 밖에 없지” 금식은 어린 아이가 밥을 안먹고 떼를 쓰는 것 같이 하나님께 떼를 쓰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헐박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자신의 영성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헌신을 과시하는 수단은 더욱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 58: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사 58: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 58: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굶은 베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사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개가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궁중 문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신의 시녀와 내시로부터 들은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시켜 자초지종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하닥이 모르드개를 찾아가니 모르드개는 하닥에게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가 그것을 보고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유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닥은 에스더에게 돌아와 모르드개가 한 말들을 모두 전합니다.

하닥으로부터 모든 상황과 모르드개의 부탁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심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개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에 4:9)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 4:10)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에 4:11)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인들 왜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왕실에는 엄연한 법도가 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한지가 30 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와스디 왕후도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화근이 되어 폐위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는 있는데 만약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왕에게 유대인을 위하여 조서를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미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나간 조서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관을 모르드개도 모를리 없건만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닥이 에스더의 정중한 거절이 담긴 메시지를 모르드개에게 전하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에 4:12)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에 4: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 4: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네가 만일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너와 네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이 일을 위해서인지 누가 아느냐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개를 통해 믿음의 진수를 봅니다.

모르드개의 누구를 통해서든지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천하가 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으로 멸절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에 4:15)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에 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 4:17)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을 내립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한 한 여인의 숙명적인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순교적인 희생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단을 내린 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모르드개와 온 유다인에게 자신을 위해 삼 일을 금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을 하기로 정합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요청대로 다 이행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고 따라서 결단할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기도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라도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 58: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사 58: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사 58: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사 58: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의 길에는 굽은 길도 있고 평탄치 못한 험한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굽은 길은 곧은 길로, 험한 길은 평탄한 길로 고쳐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맡겨진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최악의 경우 죽는 것 밖에 더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죽는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결단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먹고 헌신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